

第1回 國立公園大會盛了



— 智異山 國立公園 老姑壇에서 —

閔 仙 基

<國立公園協會總務課長>

歷史的인 大會에 500餘名이 參加

1975年 7月 26日은 우리나라에서 最初의 國立公園大會가 열린 歷史的인 記念日이다. 이날을 期해 國立公園運動이 하나의 國民運動으로 本格化 되었다. 下午에 내리기 始作한 가랑비 탓으로 登山 野營의 條件은 不利 했으나 國立公園運動의 先驅者라는 自負心과 使命感에 넘친 參加者들은 海拔 1,506 미터의 老姑壇까지 4時間의 高된 山行도 오히려 보람에 가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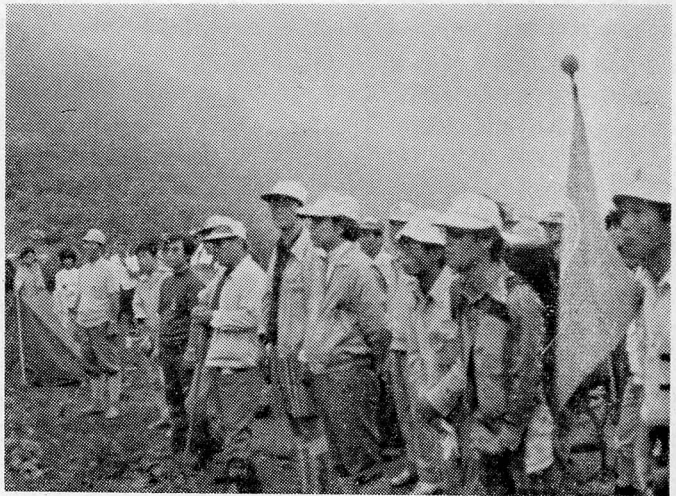
國立公園協會가 主催하는 年例行事로 發足한 이번 大會에는 宣傳, 有關團體의 協調등이 未洽했으나 現地 智異山岳會員들을 비롯하여 光州, 順天 麗水, 晉州, 南原 등 智異山周邊과 서울, 江原, 濟州 등 各地에서 各界各層으로 부터 500餘名이 國立公園運動의 先導者로 參加했다.

특히 政府의 國立公園關係 高位人士들과 全南道知事의 臨席은 國立公園運動에의 確固한 意志와 政策比重을 나타낸 것으로 參加者 모두가 마음 든든함을 느꼈다.

太極旗와 愛國歌의 感激

우리國土의 代表的 自然景觀地 그것도 1,506 미터의 山上에서 우렁차게 合唱한 愛國歌(26日 밤)와 울려 퍼지는 愛國歌를 들으며 휘날리는 太極旗에 敬禮를 올린 27日 아침의 國旗拜禮는 山行의 피로도 잊고 이 祖國江山을 몸바쳐 守護할 決心이 가슴벅찬 感激으로 모두의 가슴에 안겨졌

다. 國立公園協會 金允基會長의 開會辭, 建設部長官의 致辭, 全南道知事의 歡迎辭 등 모두가 國立公園運動에 대한 激動과 感謝로 이어졌으며 國



智異山 老姑壇에서의 開會式光景

立公園運動에 功勞가 많은 智異山岳會(會長 禹鍾秀)에게 團體表彰, 咸泰式(老姑壇山莊 管理人), 朴昌權(建設部 國土利用管理官—初代公園課長) 兩氏에게 個人表彰의 功勞牌가 國立公園協會 會長으로부터 傳達되었다.

感謝, 反省, 所望

國立公園運動의 歷史가 짧고 最初로 舉行된 이번 大會는 主務部인 建設部를 비롯하여 全南道 求禮郡 등 關係機關, 朝鮮日報社 全南日報社 등 後援團體 現地智異山岳會 등의 積極的인 協調와 모든 參加者가 共同主催者라는 參與意識이 大會盛

建設部長官 致辭

오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갖는 國立公園大會를 이곳 지리산에서 開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이 자리에서 人事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無限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옛부터 錦繡江山으로 불리어 왔으며 4季節이 確然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철따라 우리國土는 옷을 갈아 입어가며 우리 民族의 情緒를 淳化하고 平和롭고 潤澤한 生活環境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는 先祖로부터 이 훌륭한 고요한 자연을 이어 받아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가 國土를 사랑하고 自然을 保存하려고 努力하는 것은 주어진 自然을 가다듬어 後孫에게 보람찬 生活環境을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政府가 애써 國立公園을 指定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代表할 수 있는 自然景觀地를 永久히 保全하므로서 高潔한 民族精神의 涵養과 潤澤한 生活環境의 造成에 1次的인 目的이 있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1年을 轉換點으로 祖國近代化의 旗幟아래 工業化를 主軸으로 한 經濟建設에 總邁進하여 全國 坊坊曲曲에 建設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開發의 물결은 深山幽谷에 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急速한 經濟發展은 工業化와 都市化를 促進시켰고 또한 急激한 工業化와 都市化 過程의 그늘에는 많은 部門의 國土가 本意아니게 破壞, 汚染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우리는 이에 對한 保全對策을 또다른 次元에서 講究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國立公園은 이러한 必要에 의해서 全國에 11個 公園이 指定開發되고 있으며 所得增大에 따른 國民의 餘暇空間으로서도 큰 役割을 擔當하게 될 것입니다. 所得向上에 따른 文化의 生活慾求의 增大는 必然코 自然에의 憧憬과 新鮮한 休息空間을 希求하는 것이 先進國의 趨勢로 되어있으며 現在의 우리나라 觀光趨勢만도 이와같은 發展趨勢에 있으므로 國立公園의 機能과 役割은 더욱 增大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따라서 國立公園의 秀麗한 自然景觀資源을 우리國民 모두가 自己몸을 아끼듯 한 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꽃은 勿論 여기에 棲息하는 한 마리의 動植物이라 할지라도 貴重하게 가꾸고 다듬어서 當代의 우리는 勿論 먼 後孫에 이르기까지 즐길 수 있도록 다함께 協力할 것을 懇曲히 要請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곳 國立公園 智異名山에서 國立公園史에 記錄될 本大會를 主催한 韓國國立公園協會와 이大會를 빛나게 한 後援機關 여러분의 勞苦에 對하여 깊은 感謝를 드리고 國民總和를 다짐하는 大國民運動에 寄與할 것을 祈願하면서 人事에 代하고자 합니다.

1975年 7月 26日

了의 바탕이 되었으며 특히 많은 職員을 引率하고 參加해 주신 日刊內外經濟의 金泰東社長과 外國人으로서 參加하여 祝辭까지 해주신 무알로크 계획국장과 MIT의 로드윈教授등 UNDP關係者들에게 感謝를 드린다. 처음 舉行한 큰 行事여서 相當히 緻密한 計劃을 세웠으나 交通便遲延으로 現地到着이 늦었고 場所가 登行에 4時間以上이 所要되는 山頂이어서 野營準備가 바빴고 곳은 날씨와 時間에 쫓겨 計劃했던 學術講演이 取消되는등 不足하고 不滿스런 點이 많아 期待에 報答하지 못했음을 깊이 反省하고 이제 點火된 國立公園運動을 보다 알차게 推進하기 위하여 大會要員의 確保와 計劃의 檢證을 되풀이할 作定이다. 우선 第2回大會는 보다 長期間의 計劃과

容易한 地點에서 좋은 日氣가 保障되는 季節에 舉行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이번 大會에서도 一部參加者中에는 山岳人을 自處하여 山岳에서의 行事는 自己들의 獨占物이며 自己들을 모시고라야 可能한 것으로 믿고 行패를 부린 경우가 있었고, 招待하지 않는다고 協調를 拒絕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마땅이 是正되었으면 한다. 國立公園만이 아니라 우리國土는 우리 모두의 것이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그들만이 山을 지키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피흘려 錦繡江山을 지킨 祖上의 子孫이며 겨레이기 때문이다. 國立公園運動은 바로 이點을 깨우치기 위한 國民運動이기도한 것이다.